

자활기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질적 연구

조준용¹, 박송이², 김희주^{3*}

¹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부교수, ²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로,
³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Qualitative Study on the Social Value of Self-Support Enterprise

Joon-Yong Jo¹, SongYi Park², HeeJoo Kim^{3*}

¹Associate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Hallym University

²Ph.d Candidate, Dept. of Social Welfare, Seoul National University

³Assistant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Hyupsu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표는 사회적 경제의 모태로 알려진 자활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질적연구를 통해 도출하는 것이다. 총 네 차례에 걸친 FGI와 주제분석을 통해 본 연구가 범주화한 자활기업의 사회적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활기업은 시장지향성을 가진 기업이자 동시에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복지를 제공하는 '사회안전망'의 가치를 갖고 있었다. 또한, 자활기업이 추구하는 '공동체성'은, 자활기업과 그에 속한 참여자들이 비영리적 가치와 호혜성, 그리고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가치였다. 끝으로, 자활기업이 갖고 있는 존재론적, 통시적, 그리고 생태계적 '지속가능성'은 자활기업이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었다. 이러한 발견들은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이론적, 경험적 근거를 제공하는 선행연구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다. 이를 토대로 향후 사회적 경제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 자활기업, 사회적 가치, 사회안전망, 공동체성, 지속가능성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social values of self-support enterprises, known as the origin of social economy by using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Main themes representing social values of self-support enterprises were developed through four sessions of FGI and thematic analysis. First, self-support enterprises embody the value of 'social safety net' by providing workfare for disadvantaged people as well as by operating market-oriented business. Additionally, 'communal spirit', for which self-support enterprises strive, is social value that enables the entirety of self-support enterprises and participants to fulfill non-profit values, reciprocity, and sharing. Lastly, ontological, diachronic, and ecological 'sustainability' of self-support enterprises is a foundational element which creates continuous positive impact on our society. Findings of this study are significant to provide theoretical and empirical evidence for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of the social economy ecosystem. Based on this, further researches on comprehensive social economy are suggested.

Key Words : Self-Support Enterprise, Social Value, Social Safety Net, Communal Spirit, Sustainability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Hallym University Research Fund, 2020(HRF-202009-004).

*Corresponding Author : HeeJoo Kim(pennee@naver.com)

Received December 23, 2021

Revised January 26, 2022

Accepted February 20, 2022

Published February 28, 2022

1. 서론

최근 들어 한국의 경제 영역에서는 기존의 자본주의적 이윤 추구를 뛰어넘는 대안적인 경제로서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는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해 미래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1-3]. 그럼에도 실제 현장에서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다. 특히 사회적 경제의 모태로 여겨지는 자활기업 관련 연구들은 아직 사회적 가치의 규범적인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4,5].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 인식되고 실현되는 사회적 가치의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접근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질적 연구를 통해 실천 현장의 인식에 기반한 자활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자활기업은 1996년 자활사업 시범사업 당시, 저소득층이 자활사업단에 참여한 뒤 공동창업을 통해 자활에 이르게 하는 자활공동체 모델에 뿌리를 두고 있다. 특히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함께 자활제도가 제도권으로 편입된 이후, 자활공동체는 기업적인 이윤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의 원형으로 인식되었다[6,7]. 이후 자활공동체는 2012년 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을 통해 자활기업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사회적기업이라는 용어는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이후 고용노동부의 프로젝트로 자리 잡으면서 공식화되었다. 특히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폭넓은 지원과, 사회적 책무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기업의 경영철학 등이 맞아떨어지면서, 사회적기업은 자활기업과는 차별적인 성장을 하게되었다. 이 외에도, 2010년 「마을기업 육성계획」에 따른 마을기업과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한 협동조합 역시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구분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경제는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경제 활동 영역을 일컫는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사회적 가치 기본법」안을 보더라도 미래의 성장을 위해서는 더 이상 이윤과 효율이 아닌 사람과 공동체 가치를 지향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2,3]. 하지만, 사회적 경제 영역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가치를 일반 영리기업처럼 화폐가치로 보여주기가 쉽지 않다[8]. 이는 사회적 가치가 갖는 무형성 혹은, 계량하기 어려운 측면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령 현재 사회적 가치 측

정을 위해 표준화된 평가도구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개별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특성에 따른 사회적 가치가 드러나기 쉽지 않고, 오히려 척도에 따라 성과를 추구하다보면, 제도적 동형화를 야기할 위험도 나타날 수 있다[8].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 경제 영역의 시초로 알려진 자활기업의 성과를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의 뿌리를 찾아보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특히 2004년 광역자활센터의 시범사업과 함께 그간 상대적으로 외면받던 자활기업에 대한 규모화, 광역화가 이루어지면서, 자활기업은 사회적 경제의 모태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광역자활사업 성과 평가라는 맥락에서도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경기광역자활센터의 지원을 받아 자활기업의 질적성적을 평가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주제분석을 통해 자활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변화하는 고용복지 환경에서 자활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발전을 위한 함의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2. 이론적 고찰

2.1 자활기업과 사회적 경제

여기서는 우리 사회의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알려진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기본 개념을 살펴본다.

2.1.1 자활기업

자활기업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를 말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경우를 일컫는다. 이러한 자활기업의 유형은 크게 지역과 범위에 따라 지역자활기업, 광역 자활기업, 전국 자활기업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외에도 기업의 규모화 수준 및 사회적기업 인증 여부 등을 기준으로 광역자활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자활기업, 자립형 자활기업으로도 유형화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후후 초점집단 인터뷰를 진행할 때 현장의 동질성과 전형성을 확보하기 위해 후자의 유형을 따랐다.

2.1.2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들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고,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한다.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창·혁신형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9].

2.1.3 마을기업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2010년 12월 「마을기업 육성계획」이 수립된 후, 2011년부터 행정안전부 주도로 본격적인 마을기업 사업 육성 및 추진이 이루어졌다[10].

2.1.4 협동조합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을 말하는데,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따라 사회적경제화 문제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형태의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해졌다. 특히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의 권익,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을 말하며, 기획재정부의 인가를 통해 설립이 된다[11,12].

이처럼 다양한 사회적 경제의 유형들은 각기 다른 시기에 설립되고, 각기 다른 근거법령과 정부 부처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사회적 목표를 수행한다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발생 시기뿐만 아니라 경제 영역에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선도적인 측면에서, 자활기업은 여전히 사회적 경제의 모태가 되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13].

2.2 사회적 가치의 개념 및 측정

최근 들어 사회적 경제 영역 중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1,14-16], 이들 중 자활

기업에 대한 것들은 대개 자활기업의 사회적기업 전환 가능성과 연관된 것들이 많다[4,5,17,18]. 이러한 연구들은 자활기업의 발전을 위해 사회적 자원 활용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나, 자활기업의 사회적 가치 그 자체에 대한 깊이 있는 접근을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사실 사회적 가치의 학술적 개념은 여전히 구성되는 단계이며, 내용 정의는 다분히 실용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017년 발의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에 따르면, 사회적 가치란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말하며, 인권, 안전, 건강, 근로조건에서부터 지속가능한 환경과 참여 및 공동체의 이익실현에 이르는 13가지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가치를 공공과 민간을 포함한 모든 조직과 제도에서 사람들의 사회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규범이자 실천적 가치로 정의하기도 한다[19]. 반면 경제·경영이 사회를 도외시킬 수 없는 배경을 문명사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기업이 경제적 책무에서 사회적 책임, 더 나아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나가는 진화론적 관점도 있다. 이러한 시각은 사회적 가치를 인류 보편의 가치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20,21].

이에 비해 사회적 가치를 보다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도록 시도한 연구들도 있는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 가치지표 개발을 통해 사회적 성과, 경제적 성과, 혁신 성과를 제시하고 있다[22]. 하지만 이러한 지표를 바로 자활기업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우선 성과로서의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자활기업 현장의 인식이 잘 반영되지 않아, 지표의 타당도에 대한 의문이 있고, 또한 현실적으로 사회적 가치라는 질적인 개념을 바로 계량화하여 점수화하기도 쉽지 않다. 무엇보다 자활기업의 특성에 맞는 성과, 특히 계량적 성과평가에서 드러나지 않는 자활기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미진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에서 자활기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접근은 어떠해야 하는가? 무엇보다 앞서 논의한 대로, 경제적 가치로 환원하기 어려운 사회적 산출물에 대해서는 질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찾아내기 위한 연구방법 역시, 자활기업이 경제활동 과정에서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의 사회적 의의나 가치는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는 것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3. 연구방법 및 연구대상

3.1 질적연구와 주제분석

자활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도출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자활기업의 성과에 대한 질적연구 맥락에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주제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계량화나 객관화가 쉽지 않은 대상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며, 이 과정에서 현상에 대한 생생한 이해와 풍부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23]. 또한, 주어진 주제에 대해 참여자들의 밀도 높은 경험세계와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내부자 중심의 연구가 가능하다. 무엇보다 참여자들의 동적인 변화나 적응, 대처과정들의 양상을 이해하는 데에도 유용할 수 있어[24],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사회적 가치의 개념에 대한 현장 적합성과 적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자활기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3차에 걸쳐 선행 초점집단면접(FGI)을 실시하여, 자활기업의 구조와 활동, 그리고 산출과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이후 4차 FGI에서 자활기업의 사회적 가치에 초점을 맞춘 FGI를 진행하였다.

3.2 초점집단면접(FGI) 실행 및 분석과정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지역의 자활기업들을 대상으로 2019년 5월 3일부터 6월 19일까지, 총 4차례에 걸친 초점집단면접(FGI)을 진행하였다. FGI 문항 구성과 집단 구성, 그리고 FGI 실행과 분석과정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3.2.1 FGI 집단 구성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내 187개의 자활기업 리스트를 확보하고, 경기광역자활센터의 도움을 받아 질적 성과 맥락에서의 사회적 가치와 그것이 도출되는 경험적 매커니즘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전형성에 초점을 둔 집단 구성을 하였다. 이때 1~3개의 집단에 대해서는 각 회차별로 FGI 집단의 동질성이 보장되는 유형화를 시도한 편의 샘플(convenience sampling)을 하였고, 사회적 가치를 논의하는 4회차에는 다양한 유형의 자활기업이 한꺼번에 참여하는 통합 집단 구성을 시도하였다. 이에 따라 1차 FGI는 광역자활기업, 2차 FGI는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활기업, 3차 FGI는 자립형 자활기업, 4차 FGI는 통합 집단(광역/사회적기업)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회차별로 2~4인의 기업 대표 및 현장전문가가 참여하였다

(Table 1).

Table 1. FGI Schedule and participants

No.	Date	Type of Enterprises	Participants (Enterprises)
1st	3 May, 2019	Macro type	A, B, C, D
2nd	8 May, 2019	Certified social enterprise type	E, F, G, H
3rd	14 May, 2019	Self-support type	I, J
4th	19 June, 2019	Mixed type	K, L

3.2.2 분석 과정

연구진은 우선 FGI 내용을 녹취하여 질적 연구의 자료 분석과정에 따라 전사하고, 원자료들을 줄 단위로 분석하면서 분석틀 및 연구주제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내용들을 개념화하였다(코딩분석). 이후 유사한 개념들을 분류하여 묶어가면서 하위범주와 범주들을 구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 도출을 위한 주제분석을 실시하였다.

4. 자활기업의 사회적 가치

여기서는 본 연구진이 실시한 FGI 내용을 토대로 '자활기업의 사회적 가치'라는 주제에 따라 개념화된 코드들을 분류하고, 분류된 개념들을 다시 범주화하여 주제मुख한 결과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주제분석을 통해 나타난 자활기업의 사회적 가치는 '사회안전망', '공동체성', '지속 가능성'으로 정리할 수 있다.

4.1 사회안전망

4.1.1 일을 통한 복지

자활기업은 일반 시장에서는 고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개방하고 일자리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을 통한 복지'라는 고용복지의 중요한 가치를 실현하고 있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국가 사회안전망의 역할과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복지를 실현하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치지향은 자칫 자활기업의 시장 경쟁력의 일부를 희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으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자활기업 존재 자체의 이유가 이러한 사회적 가치의 우선과 실현이라는 바를 잘 보여주고 있다.

다른 사회적기업들은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진 못해요. 협동조합도 그렇고 마을기업도 그렇고. 지역적인 문제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만 자활기업은 어느 자활기업이든 모든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지역에서 수급자 취업을 하기 힘든 부분들을 맡고 있어요 (참여자 K).

4.1.2 제도의 건강성

이처럼 자활기업이 사회안전망 기능을 갖는 것은, 사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정책으로서 역할을 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때, 사회·경제적 위기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이 더 심각한 위험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고용을 통해 지속적인 탈빈곤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빈곤정책이 수급자의 근로유인을 저해한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복지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기능도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자활기업은 사회적 경제 내에서도 ‘심장’과도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건강성은 이게 자활이 없으면 성립이 안 되는데) 그런 면에서 사람으로 보면 사회적 경제 내에서도 자활기업은 심장이나 호흡이죠. 기본으로 살아야 하니까 (참여자 K).

4.1.3 사회적 비용 대 가치 창출

FGI 참여자들은 자활기업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복지 비용을 절감하여,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가치를 창출하게 되는 선순환성을 만들 것으로 예측하면서 이에 대한 기제를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사회적 가치로 설명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고용을 통한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알코올 중독 등의 문제나 기타 사회적 위험 예방에 기여한다는 점도 포함된다. 이러한 점은 자활기업이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의 복지지출이라는 사회적 편견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으로서 재인식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안전망에서 자활기업이 있었던 그 존재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건 이분들이 여기 와서 일을 안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다시 지역에 가서 수급을 하든 거기서 뭔가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남은 시간 동안에 술을 드시거나 하면서 지역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하니까, (중략) 그 안에서 일을 하고 어떤 자기의 삶의 보람을 찾고 즐거움을 찾게 되면 그 사회 안정성이 유지되는 거고 사회안전망을 형성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참여자 K).

지금도 많이 듣는 게 ‘내 세금을 왜 저 사람한테 줘야 돼’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을 하면 세금 절약이 되는 것... 급여든 운영비든 사업비든 다 스스로 해결을 하니까 (참여자 L).

4.1.4 포용과 참여

자활기업은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주 등 사회적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고용을 통해 복지를 실현하고, 이 과정에서 사회에 참여하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대상의 포용성과 사회참여 기회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었다.

지금 자활 같은 경우는 노인, 장애인 다 있거든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돈 없다는 거잖아요. 돈 없고 사회적으로 바닥 치고 (참여자 L).

자활에서 수급자나 차상위나 아니면 한부모 역할을, 중장년여성으로써 역할을.. 이렇게 장기 일을 못했던 분들을 모아서 돌봄이라는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일 자체를 하시면서 사회하고 소통하는 방식이나 자기의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이나 의견을 말하는 방식들을 배우고 역할을 만들어가는 것이 다른 곳하고 좀 다른 것이예요 (참여자 C).

Table 2. Categorical Analysis of Social Value: Social Safety Net

Theme	Type of Enterprises	Concept
Social Safety Net	Welfare through work	Work opportunity for the poor
	Soundness of welfare	Legitimate welfare system, Heart of social economy
	Social cost vs. Value creation	Reducing welfare spending, Prevention of social problem, Long-term investment
	Inclusion and participation	Opportunity for the least advantaged, Promote social participation

4.2 공동체성

사회안전망이라는 주제가 자활기업 참여자의 삶의 보장과 관련된 가치를 포함하는 것이라면, 공동체성은 자활기업이 추구하는 참여자와 기업, 그리고 사회와의 관계와 관련된 가치를 나타내는 주제이다. 특히 다른 사회적 경제 기업과 가장 차별적인 가치이자 자활기업의 정체성의 실체로 여겨지는 부분이 바로 공동체성이었는데, 그것은 비영리적 가치 추구, 상호부조와 책임의식에 기반한 호혜성, 그리고 나눔의 미학의 범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점들은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 복원의 측면에 적합

한 사회적 가치로 이해될 수 있다.

4.2.1 비영리적 가치 추구

FGI 참여자들은 자활기업은 그 뿌리부터 비영리성을 가지고 출발하여, 추후 시장경제에서 영리적 기업의 특성을 접목시켜 발전하였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DNA를 품고 있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자활기업이 추구하는 가치는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지속되는데, 이는 영리추구를 목표로 시작하여 비영리성을 가미한 다른 유형의 경제 조직과 차별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자활기업 참여자들은 오랜 기간 자활제도에서 준비과정을 거치며, 비영리적 목표를 내재화해왔기 때문이다.

저는 근본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태생이라고 그러냐? (중략) 이거를 비영리 영역에서 영리를 갖다 붙이는 비영리의 영리화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랑 어느 정도 지나면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바뀐 게 영리에서 이.. 약간의 비영리화. 영리화, 비영리화가 뒤섞여 있는데 약간의 갖다 써야 한다고 해야 하나? (참여자 K).

저는 기본적으로 사회적기업이나 일반 협동조합하고 자활하고 DNA가 다르다... (중략) 우리가 초창기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지금 여전히 유효하냐? 변화된 사회가 어떻게 구현되는 거냐? 이런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협동하고 협업하고 공동체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만들 수 있는 거는 유일하게 자활밖에 없다 (참여자 D).

4.2.2 호혜성

무엇보다 자활기업은 구성원 간에 상호 의존하고 도움을 주는 호혜성에 기반하여 운영된다는 점에서 명확한 정체성이 드러나고 있었다. 이것은 위기상황에서도, 취약계층과 근로능력이 미약한 구성원들에 대해 자발적 상부상조를 하며, 구성원 모두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으로 운영에 참여하는 모습에서 잘 드러나고 있었다.

그 힘든 삶을 한 번 나락까지 떨어져 본 적이 있는 상황들에서 그 분들의 가치이기 때문에... 안 좋은 상황이 왔을 때 살아남으려면... 가장 우선순위가 그분들이 스스로 뭐 급어를 낮추거나 일을 더 하거나 이게 더 우선적으로 나오지 (참여자 K).

그렇게 계속 마이너스를 치면서 유지할 수 있었던 방안이 회원들이 다 도움을 주신 거예요. 조합원들이 뭔가를

스스로 역할을.. (중략) 그 분들이 자기네들 기업이라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구나 (참여자 C).

특히 고용에서 취약계층을 우선시하는 전통을 이어나가면서도, 이들과 기업 대표가 주요 의사결정 및 사업 수익을 함께 공유하는 것은, 공동체성의 가치를 유지하며 기업을 성장시켜온 ‘자활다움’ 그 자체로 볼 수 있는 것이었다.

시장 논리가 아닌 거는 인력을 채용할 때도 마찬가지로요. (중략) 채용을 할 때 사업단에 계신 분들은 노동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평균 수준을 밀도는 부분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업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분들을 채용 1순위로 검토를 해요. (중략) 자활스럽다라는 건 이 공동체 정신에서 찾아야 할 거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참여자 A).

대표님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자활기업답게 하자고 그래요. (중략) 내가 여기서 일할 수 있는 만큼 하고 후배들한테 물려주겠다, 좋은 자리를 물려주겠다 (참여자 B).

4.2.3 나눔의 미학

자활기업이 추구하는 목표는 외부적으로는 기업의 성과 창출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참여 구성원들의 행복이었다. 이러한 목표 추구가 가능했던 이유는, 자활기업은 ‘돈을 벌어서 나누기’에 몰두하기 보다는 ‘서로 나누면서 돈을 벌어가는’ 기업 마인드를 지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향성은 경제적 성과 측면에서 성장 속도가 늦더라도 나누며 함께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활에서도 공동체이면서도 기업이라는 거는 무시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중략) 살아남는 거 이외에 이걸 어떻게 더 확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참여자 D).

Table 3. Categorical Analysis of Social Value: Community Spirit

Theme	Type of Enterprises	Concept
Communal Spirit	Pursue Nonprofit value	Rooted in non-profit, Engraved on DNA
	Reciprocity	Mutual aid, Crisis management, Voluntary sacrifice, Co-ownership, Typicality of self-Support
	Art of Sharing	Goal of enterprise, Happiness seeking, Sharing as a goal, Money making while sharing, Slow but together

4.3 지속가능성

마지막으로 주제분석을 통해 드러난 것은, 자활기업에서 파생된 사회적 가치가 존재론적, 통시적, 그리고 생태계적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을 갖는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시장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자활기업이 지속되어온 존재 자체에 대한 통찰과 역사적 관점에서 지속되어온 자활 정신의 계승, 그리고 자활의 테두리를 벗어나 사회 환원으로 확장되는 생태계적 선한 영향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처럼 자활의 가치가 잘 유지되고 선순환적으로 전파되어, 사회공헌과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수행해나갈 수 있는 구조적 매커니즘 역시 사회적 가치로 이해할 수 있다.

4.3.1 존재론적 지속가능성

FGI 참여자들은 취약계층이었던 자신들의 삶, 그 자체가 사회적 가치 실현의 증거라는 것을 강조한다. 사람 중심, 공동체 중심의 가치를 내세운 자활기업이, 경쟁적인 시장 환경에서도 일자리 중심의 복지에 기반하여 오랜 기간 존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로부터 사회적 경제의 태동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자활기업의 존재 그 자체가 사회적 가치라는 것이다.

우리는 생활 자체가 그냥 가치 실현이잖아요. (중략) 지금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 그 사람들이랑 같이 하면서 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 사회적으로 우리한테 일을 줄 수 있게끔 바뀌어가는... (참여자 L).

자활기업을 제일 쉽게 설명을 하면 취약계층들이 모여서 일을 하면서 그게 지속가능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중략)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적,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그 안에서 이 분들의 자존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서 회복이 되는 거고 또 그게 지속가능이라는 이야기는 어느 순간부터는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참여자 K).

4.3.2 통시적 지속가능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활기업의 태생과 뿌리에 기반한 정체성을 지금껏 지속해온 것은, 이를 얼마나 잘 유지하고 전달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자활기업 참여자들은 이러한 전달자 역할을 지속해왔는데, 이는 설명 자활기업의 대표가 바뀌어도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는 유지되고 실현될 수 있는 공동체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자활기업이 신뢰에 기반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규모화를 가능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년 세대를 영입하여 차세대 리더를 양성함으로써 자활기업의 가치를 보존하려는 노력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자활기업은 대표자가 바뀌어도 계속 자활기업으로 가져갈 거예요. 소수의 리더들의 가치가 만들어진 회사라고 전체가 공유하고 가고 있느냐.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참여자 K).

대학하고 MOU를 체결을 해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사회경제조직에 대한 이해를 갖게 해서 이쪽으로 좀 유입시킬 수 있게. 나중에 좀 사회경제조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게 그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젊은 인재들이 (중략) 씨앗이 돼서 이제 퍼질 수 있는 단초가 된다는 거죠 (참여자 A).

4.3.3 생태계적 지속가능성

앞선 자활기업의 공동체성은 기업 내부의 상호부조 정신뿐만 아니라, 외부 생태계에 대한 사회적 환원을 가능하게 하는 가치로 볼 수 있다. 즉 기업이 만든 이익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일정 비율을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자활기업 참여자들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차원에서 사회 전체 구성원들과의 공동체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자활기업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제가 자활기업 나온 게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어쨌든 돈을 벌어서 성공을 해서 자활에 계신 분들을 나는 취업 시켜주고 싶었어요. (중략) 취업을 시켜야지 하는 보이지 않는 사명이 있었어요.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야 뭐 자활기업은 다 들어가는 거고 사실은 사회환원에 대한 사명이 있거든요. 내가 번만큼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공동체를 나오는 이유가 그거였어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는 막 돈을 버는 게 나는 환원을 할거야. 그런 목표로써 자활기업을 나왔어요 (참여자 J).

이러한 자활기업의 가치가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는 일반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면, 법과 규범의 준수를 뛰어넘어 기업윤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기업 활동을 통해 불평등과 같은 사회 문제들까지 아우를 수 있다.

대표님을 포함해서 리더들이 가치와 양심을 지키면서 가자는 것들. 사업을 하시더라도 정직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뭘 숨기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정확히 법을 지켜가면서 규칙대로 하자고 하시죠 (참여자 D).

저 같은 경우는 건강성이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중략) 기업을 개인의 사유화 시키지 않으면서 계속 그것들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확장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사업을 공유하는 거죠 (참여자 B).

Table 4. Categorical Analysis of Social Value: Sustainability

Theme	Type of Enterprises	Concept
Sustainability	Ontological aspect	Year-long existence of self-support agency, Individual life as an evidence of social value, Structure that provide decent work for the poor
	Diachronic aspect	Intergenerational spreading of social value, Recruiting young generation, Seed to a fruitful future
	Ecological aspect	Promoting business ethics, Social return as a mission, Inherit not privatize

5.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경제의 모태로 알려진 자활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도출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자활기업의 질적 성과에 대한 주제분석과 개념의 범주화를 시도하였다.

우선 자활기업은 시장지향성을 가진 기업이자 동시에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복지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포용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빈곤정책의 건강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측면을 포괄하여 ‘사회안전망’이라는 범주의 사회적 가치를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자활기업이 추구하는 ‘공동체성’은 자활기업과 그에 속한 참여자들이 기업 내부의 공동체성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향한 공동체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사회적 가치를 내포한 범주였다. 이는 시장경쟁 속에서도 곳곳이 비영리적 가치를 추구하는 자활기업의 운영 원리와, 내재된 자활 DNA를 바탕으로 위기 상황에서도 상호부조와 책임을 다하는 호혜성의 원리, 그리고 수익 창출 목표보다 나누는 과정을 우선하는 나눔의 미학이라는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가치는 존재론적, 통시적, 그리고 생태계적 ‘지속가능성’인데, 이는 궁극적으로 자활기업의 지속가능성이 사회적 가치가 된다는 것이다. 특히 경쟁적인 시장경제 환경에서 자활기업의 흔들림 없는 존재 자체가 사회적 경제의 씨앗이 되었고, 그 가치가 역사적으로 계승되어지는 구조가 있으며, 무엇보다 선순환적 사회공헌과 책임을 통해 생태

계적 환원을 하고 있다는 것은, 향후에도 자활기업이 지속적으로 우리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게 한다.

이러한 발견들은, 계속 변화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용복지 환경에서,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이론적, 경험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학술적으로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개념의 모호성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개념의 구체화를 위한 기초연구가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계량적 측정이 갖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여, 현장성과 타당도를 고려한 지표개발을 위한 선행연구로서 기여도 가능하다. 그럼에도 본 연구가 여전히 개념화를 위한 탐색적 성격이 강하다는 한계는, 향후 사회적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후속 연구를 요하고 있다.

REFERENCES

- [1] E. H. Kim, G. J. Kim & B. H. Hyun. (2021). The Effects of Social Entrepreneurship and Market Orientation on Performance in Social Enterpris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9(9), 83-93. DOI : 10.14400/JDC.2021.19.9.083
- [2] H. S. Lee & S. H. Lee. (2019). A Study on Government Innovation for Realizing Social Value: Focused on A Local Governm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7(6), 11-17. DOI : 10.14400/JDC.2019.17.6.011
- [3] E. Y. Kim & G. H. Im. (2015). Mapping the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of South Korea. *OUGHTOPIA: The Journal of Social Paradigm Studies*, 30(1), 61-92.
- [4] J. M. Jin. (2008). The Study on The Conversion from Self-support Programs to Social Enterprises : Focused on The Strategy of Utilizing The Social Resources for Sustainable Profits.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24(4), 221-248. DOI : 10.15855/swp.2009.36.3.269
- [5] H. Y. Baek & S. E. Cho. (2009). A Study on Developmental Prospects for Self-sufficient Communities: The Possibility for Social Enterprise. *Social Welfare Policy*, 36(3), 269-297. DOI : 10.15855/swp.2009.36.3.269
- [6] S. H. Jung. (2005). *Social Enterprise of South Korea*. Seoul: Dawoo Publishing.
- [7] J. W. Kim, H. Y. Baek, M. K. Lee, S. N. Jeon & S. E. Cho. (2012). *Social Economy and Self-Support Enterprise*. Seoul: Arche Publishing House.
- [8] D. H. Go, J. Y. Lee, M. S. Moon & S. Han. (2016). *Social Economy and Social Value : The Old Future of Capitalism*. Paju: Hanul.

[9] Korean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http://www.socialenterprise.or.kr>

[10]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https://www.mois.go.kr>

[11] Korea Cooperatives. <http://www.coop.go.kr/COOP/>

[12] Korea Cooperative Research Institute. <http://www.coops.or.kr>

[13] E. H. Won. (2015). *Interview 'Gang-won Self-help': What 16 Self-support entrepreneurs Say Today and The Future of Gangwon Self-help Projects*. Gang-won: Gangwon-do Metropolitan Self-help Center.

[14] H. R. Park & Y. Y. You. (2021). Effects of Professional Manpower Support Projects on Sustainability of Social Enterprises -Mediation Effect on Enterprise Characteristic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9(9), 135-144. DOI : 10.14400/JDC.2021.19.9.135

[15] B. S. Kim & Y. J. Lee. (2020). Effects of Perceived Value and Value Congruence on Loyalty about Products or Services Provided by Social Enterprises: Focused on Commitment and Trus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8(1), 83-92. DOI : 10.14400/JDC.2020.18.1.083

[16] Y. J. Lee & B. S. Kim. (2020). Effects of Value Congruence, Price Fairness, and Service Quality on Customer Performance in Social Enterpris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8(6), 197-208. DOI : 10.14400/JDC.2020.18.6.197

[17] H. J. Lee. (2016). Social Enterprise Business Operations Experience Converted from Self-Sufficient Enterprise -Based on the Grounded Theory-.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8(1), 169-191. DOI : 10.20970/kasw.2016.68.1.008

[18] H. J. Lee & Y. K. Min. (2015). A Study on Institutional Isomorphism Experience in Social Enterprise: Focused on the Cases of Chungbuk Self-Sufficient.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5(3), 515-552. DOI : 10.15709/hswr.2015.35.3.515

[19]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2019). *A Study on the Social Value and Public Value*. Seoul: Center for Social Value Enhancement Studies Research Report.

[20] K. D. Kim. (2019). *Social Value: Civilizational Reflection and Vision*. Paju: Prunsasang.

[21] S. M. Seo, K. D. Kim, H. S. Shin, J. S. Lee, J. T. Kim, S. M. Cho, D. H. Lee & Y. S. Jang. (2020). *It Opens the Era of Social Values*. Seoul: Korea National Council on Social Welfare.

[22] Korean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2018). *The 2018 Social Value Indicator(SVI) Utilization Manual*. Seongnam: Korean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23] S. W. Jung & Y. J. Jang. (2013). Qualitative Analysis of Program Evaluation Studies Using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elfare Literatur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4(4), 321-349. DOI : 10.16999/kasws.2013.44.4.321

[24] J. Y. Park. (2011). The Usefulness and Limitations of Qualitative Evaluation in the Field of Social Welfare Practice. *2011 Spring Conference on Korean Academy of Qualitative Research*.

조 준 용(Joon-Yong Jo)

[정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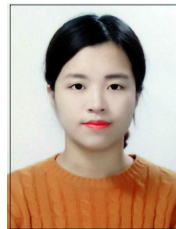


- 1995년 2월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문학사)
- 1999년 8월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문학석사)
- 2007년 12월 : U.C. Berkeley, School of Social Welfare(Ph.D)
- 2008년 3월 ~ 현재 :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부교수

- 관심분야 : 사회정책, 빈곤, 자활
- E-Mail : joyhallym@hallym.ac.kr

박 송 이(SongYi Park)

[정회원]



- 2014년 2월 :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문학사)
- 2018년 2월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석사)
- 2019년 3월 ~ 현재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 관심분야 : 사회정책, 빈곤, 자활, 사회

- 철학
- E-Mail : mighty22@snu.ac.kr

김 희 주(HeeJoo Kim)

[정회원]



- 1999년 5월 : New York Univ. East Asian Studies (문학사)
- 2001년 5월 : Columbia Univ. School of Social Work (MSW)
- 2010년 2월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가족복지실천, 다문화복지, 이주민
- E-Mail : pennee@naver.com